

제 8장 한국의 ана키스트 신채호 II

◆1교시 : 신채호 4

▲신채호의 ана키즘으로의 변화에 대한 논쟁



신채호와 관련된 논의를 해보면, 오랫동안 가졌던 민족주의자에서 ана키즘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건가. 신용하의 경우 애석한 선택이었다. 구한말부터, 3.1까지 대표적 민족주의자로서 학문과 사상과 운동에 거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애석하게도 무정부주의로 전환해서 가장 미약한 독립운동의 흐름으로 간 것은 애석하다.

민족주의와 ана키즘의 거대한 단절이죠. 인식론적 단절이라 부르는 인식이 있었죠. 민족주의는 아니다, 새로운 ана키즘을 받아들여 과거의 자신과는 연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갔다. 기존의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대표적 유학자, 독립운동가, 역사학자, 언론인이 왜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나, 이 부분에 대해 말하지 말자, 애석하다, 그랬기 때문에 신채호가 살아남았다면 민족주의자로 돌아왔을 것이 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웃기는 얘기죠.

1920년대 이후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비슷한 입장이 장을병의 경우 일시적인 방편이었다,라고 해석하죠. 민족주의자로 살았지만 일본의 폭력이 엄청난 수준이어서 당시에 가장 과격했던, 치열하게 맞설 수 있었던 무정부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선생의 본심이 아니었다.

신채호의 글들, 제국주의의 강권, 사회진화론의 핵심적인 사상인데, 강권을 신채호는 거부하고 사회가 보다 더 민중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한다. 국가가 정부 역시, 민중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신채호 ана키즘의 핵심적 사상에는 관심이 없죠.

조선 민족의 독립자체가 신채호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면 1920년대가 되면 동방의 억압된 민중들의 해방, 망국민중, 무산민중의 해방에 함께 추구해나가는데, 그런 점에서 세계주의자가 된거구요. 민족주의자를 버리고, 일시적으로 채택했다고 보기도 하는데, ана키즘을 사상적 기반으로 한 학자들은 신채호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내죠.

민족주의의 발전의 결과 ана키즘에 이르게 된 것이지, 민족주의와 ана키즘이 대립되는 사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본령에서 이탈하지 않는 ана키즘에서는 당연히 대립되는 사상이죠.

신채호와 살았던 시대, 식민지에 처해있고 제국주의의 압력에 거뒀던 시절에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민족주의가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ана키즘과 민족주의가 모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실제 서양에서나 동양에서 ана키스트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민족주의적 경

향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그것에 기반해서 신채호의 아나키즘은 특수한 것이 아니다. 프루동이나 크로포트킨, 당시 서양에서는 19세기 말에 민족주의의 광풍이 부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강요하는 거죠. 국가를 지지할래, 총 맞아 죽을래할 때 국가를 지지한다는 거죠.

▲1세대 아나키스트들의 민족주의적 성향

개인적 타을 할 수도 있지만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제대로 된 아나키즘의 모습에서 보면 민족주의는 저항의 의미도 아니죠. 지금에서는 퇴행적인 사상이죠. 아나키즘과 민족주의는 다른거다. 연관된 지점이 없다고 해야하는데, 조선 식민지시절 아나키스트운동을 하고, 남한에 남아서 아나키스트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신채호와 같은 길을 걷게 되죠.

한국 아나키즘에 있어서 신채호는 원형이죠. 거부하기 힘든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신채호뿐만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아나키스트들, 민족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회영, 유자명, 이정규, 이윤규, 뛰어난 사람이 있죠, 박열, 유림(柳林)은 훌륭한 아나키스트 활동가였고요.

나중에 해방 후 독립노동당 정당을 만들어요. 유림의 경우, 빠진(巴金)에게 에스페란토를 가르쳤죠. 그 젊은 빠진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림이 가서 빠진과 만나서 에스페란토를 전수해줬다는 말도 있죠.

민족주의라는 경향을 깔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민족주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중국은 신해혁명을 받아들인 것이고, 일본은 강력한 국가주의로 무장했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조선은 아나키스트들이 민족주의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나키스트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시대적 한계를 보긴 하지만, 조선이 해방이 되고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과연 여전히 민족주의가 저항의 가능성을 가진 것은 아니고, 아나키즘운동이 과거의 뿌리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잘못된 뿌리는 잘라내야지, 새로운 제대로 된 줄기가 자랄 수 있죠.

1세대 아나키스트들, 신채호, 이회영, 유림,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후 2세대가 나타나는데, 선배가 민족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들도 민족주의와 아나키스트를 분리시키지 못하고 민족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선의 독특한 아나키즘의 형태라고 인정하는 거죠.

처음부터 받아들인 아나키즘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민족주의 경향에 기반했기 때문에 해방이후에 정당참여를 하게 된 원인이 되죠. 아나키즘을 민족주의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다면 정당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유림의 경우 변하면서 아나키즘에 기반한 해방운동이 독특한 상표처럼 된거죠.

▲해방이후 ана키스트들의 행로

해방이후 ана키스트들이 모여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거나, 부르조아 지배체제도 거부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거부하는 ана키스트들이 있었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한 사람들은, 미국과 소련이 인위적을 나눈게 3,8선이예요.

미국의 경우 소련이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연합국에 가담해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는게 1945년 8,8일이예요. 8월 15일에 종전이 되었다면 무임승차를 한 꼴인거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승자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건데, 1917년 혁명이 일어나 볼셰비키 정권이 일어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퍼트리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데, 미국의 경우 종전이 되니까 한반도가 소련 손아귀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3,8선을 그은거죠.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찬성한 사람은 남으로, 부르조아 독재에 찬성하는 사람은 북으로 간거죠.

아나키스트들은 어디로 가야되느냐. 몇 가지 사건들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있었고, 여러 가지 경향으로 남쪽에 남아 둘 다 거부하는 제 3의 활동을 펼치려고 한 거죠. 물리적 공간으로는 제 3의 공간이 없으니까, 볼셰비키들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여러 책들, 이어령의 책들을 보면, 식민지들의 ана키스트들과 볼셰비키들이 서로 죽이고, 처음에 볼셰비키가 ана키스트들을 싫어했어요. 사회주의자들이면서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안든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상의 자유가 없던 곳이 소련인데, ана키스트들은 반대했죠. 반대를 한 것이 반혁명 분자처럼 되어서 많이 살해되죠.

아나키스트들이 복수하고 볼셰비키한테 얻어맞고 복수하는 과정이 있었죠. 민족주의자들도 싫어했지만 볼셰비키의 반목의 골이 더 깊었어요. 제대로 된 판단이 안되었고, 감정적이고, 볼셰비키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1930년대가 지나면은 민족주의적 경향이 있었지만, 남한에 남아서 정당활동을 하는데, 이승만 시절에 끝나죠. 유림도 죽고, 독립노동당도, 박정희가 집권 후 강제 해산시키죠. 2세대 ана키스트들은 농촌으로 흩어지죠.

중앙정부에서 정치투쟁을 통해 해보려던 것, 박정희 때는 할 수 없게 된거고, 농촌에서 자율운동체를 만들어서 키워나가자는 운동을 했다는 게 2세대 ана키스트들의 활동이었죠. 이전에 민족주의로 변질되고 부르조아 정치관에 참석하여 정당을 만들어 해방정국에서는 유림을 비롯한 사람들이 유효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당정치에 오염되었고, 다른 나라의 ана키스트들의 흐름들과 달라진 상황이죠.

그런 흐름들 때문에 민족주의를 부정할 수 없죠. 하기락은 다시 정당을 만들어요. 민주통일당, 평화암이나 식민지 말기부터 1980년대까지 활동한 사람들이 2세대 ана키스트들이고요. 농촌에서 자유공동체를 만들려던 이문창 같은 분이 있죠.

하기락은 1970년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세계 ана키즘 운동에 유일무이

한 기록을 갖고 있는 한국. ана키스트동상이 있고 ана키스트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아나키스트라고 할 수 있나, 개인적으로는 ана키스트라고 할 수 있죠. 내 입장에서는 아닌데, 그 사람이 ана키스트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는 없죠. 운동자체로 본다면 민주통일당, 국회의원 당선이 ана키즘 활동이냐와는 다르죠.

◆2교시 : 신채호 5

▲신채호 민족주의가 발전된 것이 아나키즘

실제로 아나키스트였던 것 같아요. 하기락은 정당정치 뿐아니라 아나키즘의 저작들을 번역했고, 크로포트킨, 프루동, 박훈의 저작들을 번역했고요, 자주(自主)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주의에 기반은 아나키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주인이 된다면 나에게 가해지는 국가, 타율, 강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자주는 정치적, 노동자 농민의 자주관리를 의미하죠. 하기락의 경우 자주인 사상이 한국적 아나키즘의 결실이라 볼 수 있죠.

조선 식민지 이후 아나키즘 백년의 뿌리에서 오고 있는 것을 보면 민족주의와 아나키즘이 연결되어 있다. 신채호의 민족주의가 사회진화론을 거부하면서 발전된 것이 아나키즘이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부분, 세계의 중심을 민족중심으로 보는 것, 등등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내실을 키우는 것이죠.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신채호에게는 인식론적 단절론이 있었던 듯 해요. 사회진화론, 우승열패, 약육강식을 아나키스트들이 거부했는가. 크로포트킨이 상호부조론을 쓰면서 동물들 사이의 상호부조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공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양자택일이나, 적자생존이나, 상호부조나, 택일하는거다라고 해석치 않는거죠. 신채호가 아나키즘을 받아들인 것도 사회진화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대안적인 사상을 받아들였다고 보다는 그것의 문제점을 이해하면서 생존과 상호부조의 원리가, 인간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사실이죠.

일본의 경우는 적자생존의 원리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므로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았다. 제국주의에 반하는 민족주의가 아나키즘과 융합하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 같다.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리로써 적자생존이나 경쟁, 약육강식을 거부한 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키스트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받고 있고요, 운동을 펼쳐나가는 데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조직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는데, 아나키스트들은 그것보다 동아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수많은 동아리들이 느슨하게 자유연합의 형식으로 추구함으로써, 혁명적 힘을 발휘하는데 관심이 없다.

시대상황으로 봤을 때, 아나키즘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죠. 소수파로 전락하게 된 원인

고, 교훈을 얻을 것이냐. 저같은 경우는 민족주의라는 것이 현대아나키즘에서는 선을 긋고 있다. 신채호도 활동을 하면서 조선민족의 해방을 주장하던 단계에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확장된 세계였겠죠.

유럽이나 아메리카는 관심밖이었겠지만요. 동아시아에서 무산대중이라는 표현이 신채호의 글에 나오고 나라를 빼앗겨 버린 망국 민중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 평균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몇 년 동안 고민을 한 끝에 나온 것이 동방무정부주의 연맹 선언문이죠. 그것을 읽어보면 신채호의 평가, 무정부주의는 일시적 방편이었다는 등, 1910년 조선을 떠나 망명길에 올라서 국적이 없죠. 빨리 남한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국적은 일제의 호적법을 만든 것을 기반으로 주민등록제도가 실시되고 남아있는거죠.

신채호는 이 나라를 거부하고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명예 한국국적을 줘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통일되면 통일공화국의 국적을 줘야한다는 말도 있어요.

선언문을 읽어보면 신채호가 살았더라면 어떤 활동을 했을까. 아나키즘과 관련된 신채호의 활동과 사상이 단단해졌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신채호를 자신에 맞게 사상을 왜곡하고 나머지는 거부하거나 각색을 한거죠.

▲신채호의 동방무정부주의 연맹 선언문 1

우리는 세계 무산대중, 우리가 이전 조선혁명선언 1923을 보면 민족이 계속 나와요. 신채호의 사상에서도 드러나지만, 위계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사상적 변화를 보자면 민족에 기반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죠.

선언문을 다른 사람이 썼다면 이런 우익들은, 이런 매국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채호가 썼던 글임을 염두하고 살펴보죠.

우리는 세계 무산대중, 1948년 맑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을 연상케하죠. 우리 동방 각 식민지의 피와 뼈와 살을 빨고 짜고 씹고 깨물어 온, 자본주의 강도제국 야수꾼들은 그 창자가 켜어지려 한다. 배가 터지려 한다. 폐부를 찌르는 느껴지죠.

피등이 너희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우리 무산 민중이, 더욱 동방 각 식민지 대중을 대가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박박 찢으며 아삭아삭 깨물어, 우리 민중은 사멸보다도 더 음침한 불생존의 생존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억압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동방 무산 민중의 생존이여. 생존 역시 신채호 시대 때나 지금이나 아나키스트들에 있어서 무산민중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피와 뼈와 살을 씹고 짜낸 자본주의 강도제국 야수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소수가 다수에게 지는 것이 원칙이라 하면 왜 최대 다수의 민중이 최소수인 강도들에게 피를 빨리고 고기를 찢기느냐? 소수가 다수에게 지는 것이 적자생존의 원칙이죠 뛰어난 사람은 극소수 되쳐지는 사람은 다수인데, 왜 최대다수의 민중이, 최소수인 야수적 강도들에게 피를 빨리고 고기를 찢기느냐

왜 우리 민중의 피가 고기가 아니면 굶어돼질 강도들을 박멸하지 못하고 도리어 박멸을 당하느냐. 이런 원리를 거부한다면 극소수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지배하는 소수가 되겠다.

삼성회장이 말하듯 천재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체제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 왜 유지되고 있는가. 피등의 군대때문일까? 경찰 때문일까? 군함 비행기 대포 장총 장갑차 독가스 등 흠참한 무기 까닭일까? 아니다 이는 그 결과요. 원인이 아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피등은 역사적으로 발달하여온 누천년이나 묵은 괴동물들이다. 왜냐 자연스러운, 대부분의 인류역사에서 상호부조의 원칙에서 살아왔는데 적자생존을 내세우면서 끔찍한 야수로 돌변했다는 거죠.

이 괴물들이 맨 처음에 교활하게 자유 평등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민중을 속이어 지배자의 지위를 얻어가지고 그 약탈행위를 조직적으로 백주대낮에 행하려는 소위 정치를 만들며 약탈의 소득을 분배하려는 곧 '인육 분장소'인 소위 정부를 두며, 그리고 영원 무궁히 그 지위를 누리려 하여 반항하는 민중을 제재하는 소위 법률 형법 등 부어터진 조문을 제정하며 민중의 노예적 복종을 시키려는 소위 명분, 윤리 등 먼동이 같은 도덕율을 조작하였다.

저들이 우리 무산 민중들로부터 약탈해간 소득들, 엄청난 재산들이 약탈이나 도둑질로 얻게 된거고, 정부는 그런 소득을 유지시키려는 인육분장소인거죠. 빼와 살을 저장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정부를 요.

국가기구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법률, 형법으로 민중을 지배하고, 명분, 윤리를 만들어 강요를 한다는 거죠. 동서양의 역사를 동털어 제왕, 성현이 모두 강도나 야수를 옹호는 앞잡이들이라는 것이죠.

신채호의 영향을 어찌 안받을 수 있는가. 민중이 왕왕 그 약탈에 견딜 수 없어 반항적 혁명을 행한 때도 많았지만 마침내 기개 교활한에게 속아 다시 그 강도적 지배자의 지위를 허여하여 폭력으로 폭력을 지배하는 '이폭이폭以暴以暴'의 현상으로서 역사를 조반하고 말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수의 민중이 소수의 야수들의 유린을 당하여 온 원인이다. 저 야수들이 중세기 이래 자유도시에서 발달하여 오는 과학과 공업적 기계 즉, 증기기계, 전기기계 등을 절취하여 나날이 정치적, 경제적, 상공업적, 군용적 모든 시설을 확대하며 증가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적자생존의 원리로 국가가 세워지고 산업혁명으로 강대국이 되는 것을 그리고 있죠.

방연한 대지구가 우리 무산 민중의 두뇌산골을 가루가 되도록 갈고 있는 일개의 맷돌짝이 되고 말았다. 그런 결과 다수의 무산 민중들은 뼈와 살이 가루가 되도록 갈려나가고 있죠. 무산 민중들의 맷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3교시 : 신채호 6

▲신채호의 동방무정부주의 연맹 선언문 2

그러나 저놈들은 우리 민중의 참상에는 눈이 멀었다. 지금 지배세력과 같죠. 우리 민중의 비명과 애호에는 귀가 먹었다. 저들은 다만 우리 민중의 고기를 먹는 입만 딱 벌리고 있다. 아 잔학, 음참, 부도한 야수적 강도! 강도적 야수! 이 야수의 유린 밑에서 고통과 비참을 받아오는 우리 민중도 참다 못하여 견디다 못하여 이에 저 야수들을 퇴치하려는 박멸하려는 정치, 법률, 윤리며 기타 일체 문구를 부인하자는 군대, 경찰, 황실, 정부, 은행이며 회사며, 기타 모든 세력을 파괴하자는 분노에 찬 절규, 혁명의 소리가 퍼지고 있다.

아나키즘의 정수를 보는 듯 하죠. 민족이나 정당정치나 신채호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흘러가지만 여기에는 별로 남아 있지 않아요. 군대, 경찰, 황실, 정부, 은행, 회사를 모두 없애야 된다는 것이 신채호의 사상이고요.

이런 사람이 국가 정부기관 앞에 영정이 있고, 전국 곳곳에 동상이 있으면 본인은 어떨까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싶어할까. 민중의 혁명의 울림이 강조됨에 따라 저 괴물의 신경도 비상히 양분하여 극도의 전율적 안광으로 우리 민중의 태도를 감시한다.

그래서 군인의 총과 경찰의 칼로 혁명적 민중을 위압하는 동시에 신문, 서점, 학교 등을 철시 혹 매수 혹 감시하여, 저들의 앞잡이 주구인 기자, 학자, 문인, 교수 등을 시키어 그 야수적 약탈, 강도적 착취를 공인하며 변호하며 예찬하며, 민중적 혁명을 소멸하려 한다.

야수의 세계, 강도사회에 정의니 진리니가 무슨 방귀이며, 문명이며 문화니가 무슨 똥물이나. 우리 민중을 알았다. 깨달았다. 저 야수들이 아무리 악을 쓴들, 아무리 요망을 피운들, 이미 모든 것을 부인한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세상을 울리는 혁명의 북소리가 어찌 멎을소냐, 구석구석 부분부분이 우리 민중과 저들 야수가 진형을 대치하여 포화를 개시하였다.

웁다. 되었다 우리 대다수 민중들이 저들 야수들과 선전하면, 나중에는 최후에는 이길 것이다. 우리 무산 민중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동방 각 식민지, 반식민지의 무산민중은 자래로 석가 공자 등이 제창한 고평내 나는 도덕의 독안에 빠져서는 안된다.

제왕·추장 등이 건설한 비린내 나는 정치의 ‘그물’ 속에 걸리어 수천 년 해마다가 일조예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자본 제국 경제적 야수들의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압력이 전속력으로 전진하여 우리 민중을 땀들의 한 돌림에 다 갈아 죽이려는데 만일 우리 동방민족의 혁명이 만일 급속도로 진행되지 않으면 동방 민중은 그 존재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존재한다면 이는 분묘 속 우리가 철저히 이를 부인하고 파괴하는 날에 곧 그들이 존재를 잃는 날이다.

▲동방 무정부주의연맹 선언문에 나타난 신채호의 ана키즘적 성격

이것에 기반한 활동들, 선전물들 만들고 동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조직활동을 하죠. 애석하게도 자금을 모으려다가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현금화하려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죽는날까지 굶히지 않았죠.

선언문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불편하죠. 정부나 관련 사람들에게는요, 한때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나오다가 그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민중들이 혁명을 통해 억압하는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니 불편하니 삭제해 버리죠.

학교 때 신채호는 민족주의자로 배우죠. 외국인들이 한국의 유명한 ана키스트들이 있다며? 누구야? 신채호는 민족주의자인데, 그래? 그 사람은 ана키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식민지시대 동아시아 ана키스트 운동이 제한적으로 영어로 번역되어 알려져 있는데, 더 알고 싶어서 그들이 물어보죠. 신채호에 대해 알려달라.

조선상고사, 우리 민족의 역사, 나아갈 길을 말한 사람인데, 우리도 국가의 시각에 길들여진 신채호를 배우죠. 이 사람이 그것을 깨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유생으로 태어나 유학교육을 받았죠. 양반가문의 자손이었고, 머리가 좋아서 성균관의 박사를 했는데요.

당시의 식민지 지배체제를 알려주기도 했지만, 이런 사상으로 발전을 한 사람이 극소수이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치열하게 자신의 행동과 사상을 끝까지 밀고 갔는지 알 수 있죠.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물들지 않은 모습들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신채호나 ана키스트들 혁명가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었나 집중했으면 좋겠고, ана키스트에 관한 것들이 사장되어 있었죠. 내가 ана키스트가 아니면 신채호와 무정부주의자라고 알릴 필요가 없죠.

민족주의적 성과만도 엄청나죠. 신채호가 소설도 써서 출판물에 실어요. 그 소설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1928년, 쓴 소설 중, '용과 용의 대 격돌'이 나오죠. ана키스트에 기반한 소설인데, 선언문에서 읽었던 두 마리 용이 대격돌을 펼치는데 아마겟돈과 같은 상황이죠.

그 소설이 남아 있어요. 용과 용의 대 격돌인지, 그 이전에 썼던 소설은 ана키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신채호가 ана키스트로 바뀌고 쓴 것이기 때문에 ана키스트공상과학소설가 중에 어슐라 르귄 Ursula Le Guin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소설을 연상시키는 선구적인 작품이죠.

여성이고 소설가인데, 뛰어난 환타지 소설인데 ана키스트의 미래상을 그리고 있어요. 두 가지 행성, 우리 살고 있는 행성, 하나는 ана키스트들이 이주하고 있는 행동이죠. 유토피아는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들이 그대로 있는 곳이죠. ана키스트들은 다르게 해결해 가죠. 한국에도 나와 있어요. 영어 원제로는 빼앗긴 자들(The Dispossessed) 신채호의 소설, 용과

용의 대격돌도 분석할 만하죠.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죠. 전의 동방무정부주의자 선언문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거나 해서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신채호의 전집을 내야된다면 좀 드러나지 않을까. 독립운동을 이끈, 건국의 아버지로 평가하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온전한 모습이 사회에 알려지게 된다면 3,1절마다 국적을 되찾자는 말을 안할거예요.

▲조선 ана키즘 특징

조선 ана키즘의 특징은 유생중심, 남성중심, 엘리트중심이 많았어요. 지금 ана키즘 연구하는 학자들도 비슷한 분위기죠. 의미가 있다면 이전에 신채호의 무시했던 ана키즘의 면모를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죠. 민족주의에 빠져있죠. 학자들이거나요.

한국아나키스트와 어떻게 접목되는지는 설명되지 못하죠. 21세기에는 주의자라는 것이 웃겨서, ана키스트없는 ана키즘이 일본에서는 유행하는데, 말을 안하면서 ана키즘이죠. 현실 ана키스트 운동으로 연결되느냐는 다른 문제죠. 과제는 많아요.

신채호와 ана키스트운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한국 ана키스트 운동을 해왔다는 사람들도 신채호 그늘 안에 있고 신채호가 보였던 한계도 노정하고 있고, 비판적으로 넘어서야 할 대상인데 숭배하는게 큰 문제라고 봐요.

큰 인물로 보지는 않는데,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죠. 학자의 경우는 신채호의 업적을 쳐주고, 혁명가의 삶을 살았죠. 체 게바라 마오쩌둥에 비교해도 처지지 않는데, 그러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신채호는 영웅이 되었을 거예요.

오랜 시절 민족주의적 영웅 사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버리고 민중사관을 얻었다는 점에서 사학자로서도 완전한 탈바꿈을 했죠. 다시 영웅화시키는 것 남한의 역사학자들의 문제점이었죠. 영웅은 없어요.